

하위권으로 밀린 外人 감독 3인의 성적표

〈롯데 자이언츠 8위 · 기아 타이거즈 9위 · 한화 이글스 10위〉

롯데 서튼 감독 부임 이후 승률 5할
기아는 144경기 체제 첫 60승 미만
한화는 리빌딩 전력 다지기 돌입해

2021년에는 프로야구 출범 후 역대 가장 많은 3명의 외국인 사령탑들이 현장을 누볐다. 하지만 이들 중 가을에도 야구하는 이는 한 명도 없다.

롯데 서튼 감독이 이끈 롯데 자이언츠는 65승8무7패로 10개팀 중 8위에 그쳤다. 서튼 감독이 처음부터 팀을 지휘한 것은 아니었다. 퓨처스팀 지휘봉을 잡고 있던 서튼 감독은 5월11일 허문희 전 감독이 경질되면서 1군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튼 감독은 어린 선수들의 기용을 꺼려했던 허 전 감독과 달리 2군에서 지켜보던 유망주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줬다. 결과적으로 포스트시즌 진출은 실패했지만 서튼 감독 부임 후 롯데는 114경기에서 53승8무53패로 정확히 승률 5할을 기록했다. 시즌 전체 승률(0.478)보다 한결 나은 수치로 내년을 기대해 봤다.

지난해 KIA 타이거즈에 임성한 맷 윌리엄스 감독은 첫째 6위에서 올해 9위로 오히려 순위가 하락했다. 최종 성적은 58승10무7패. KIA가 한 시즌 60승도 채우지 못한 것은 144경기 시대가 도래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오랜 꿈을 위해 미국행을 택한 토종 에이

스 양현종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고, 애런 브룩스가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퇴출 당하는 악재까지 마주했다. 2년차 정해영(34세이브)을 30세이브 마무리로 키웠고, 홀드왕 장현식(34홀드)을 배출한 것은 분명한 성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KIA 팬들의 감증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올해 KBO리그에 입성한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이글스 감독은 데뷔 시즌을 최하위로 마쳤다. 49승12무83패로 10개팀 중 유일하게 50승에 못 미쳤고, 80패 이상을 당했다. KIA는 1일 윌리엄스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6승1패로 20년 만에 시범경기 1위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듯 했지만 7개월의 장기 레이스를 수월히 치르기에 선수층이 충분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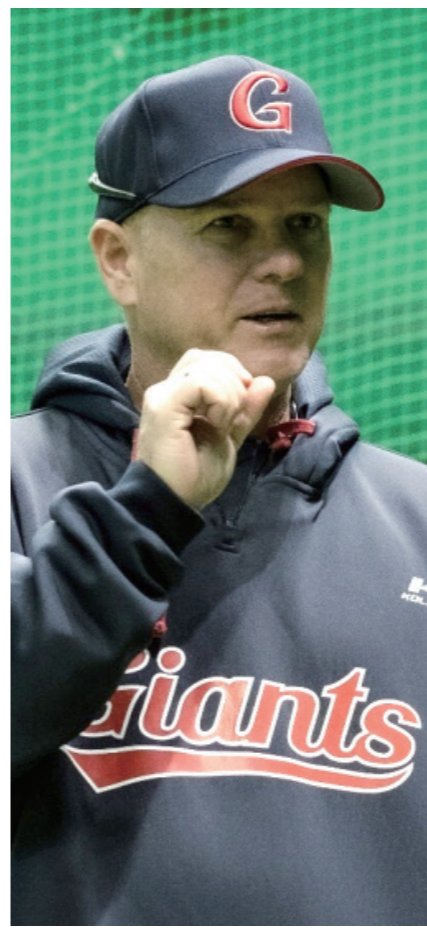
구단과 사령탑 모두 올해보다는 더 미래를 보겠다고 선언했던 만큼 빨라도 내년 이후에나 수베로 감독에 대한 진중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이는 3년차 이강철 감독이다. 레전드 투수 출신답게 막강한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한 이 감독은 KT 위즈를 첫 정규시즌 우승팀으로 이



KIA 타이거즈 맷 윌리엄스 감독

끈 지도자로 이름을 남겼다. 허삼영 감독은 삼성 라이온즈의 긴 암흑기를 끊어내면서 두 번째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초보 사령탑인 LG 트윈스 유지현 감독과 키움 히어로즈 홍원기 감독은 각각 3위



롯데 자이언츠 래리 서튼 감독

와 5위로 가을야구에 합류했다. SSG 랜더스의 또 다른 1년차 사령탑인 김원형 감독은 6위로 내년을 기약했다. 두산 베어스를 4위로 이끈 김태형 감독은 부임 후 7년 연속 포스트시즌 개근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한화 이글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반면 지난해 NC 다이노스에 통합 우승이라는 영예를 안긴 이동욱 감독은 부상으로 빠진 에이스 구창모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이탈한 주축 선수들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7위에 그쳤다.

토트넘 '성적 부진' 산투 감독 경질하나

맨유전 0-3 충격적 대패 후
수뇌부 논의 통해 경질 논해

손흥민(29)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누누 이스파리투 산투(47·포르투갈사진) 감독의 경질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 언론 BBC 등 복수의 현지 매체는 1일(한국시간) "다니엘 레비 회장이 파비오 파리티치 단장과 면담을 통해 산투 감독 경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2020~2021시즌 막판이던 올해

4월 조세 무리뉴 감독을 경질하고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로 팀을 운영하다 지난 7월 울버햄튼을 이겼던 산투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2년 계약에 사인한 산투 감독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초반 10경기에서 5승5패(승점 15)로 리그 8위에 머물며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4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승점 20)와 승점 5점 차이지만, 지난달 3일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0-3으로 완패하는 등 경기력 부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토트넘은 지난달 22일 비테세(네덜란드)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에서 0-1로 패한 데 이어 24일 웨스트햄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0-1로 졌다.

28일 번리와 카라바오컵(리그컵) 16강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급한 불을 끄는 듯 했지만, 곧바로 맨유전 대패로 비판을 받았다. 최근 공식전 4경기 1승3패다.

다만 토트넘 수뇌부는 아직 시즌 초반이라 감독 교체란 극약 처방을 내리는 데 주저하고 있다. 영국 미디어에 따르면 토트넘은 지난 2005



년 11월 자크 산티니 감독 이후 신임 감독을 부임 첫해에 경질한 적이 없다. 당시 산

투 감독은 11경기 만에 팀을 떠났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은 1일 "산투 감독이 경질은 미지수지만, 한 소식통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선 벌써 산투 감독의 후임을 거론하고 있다. BBC는 "레비 회장이 산투 감독을 경질한다면, 파울루 폰세카(포르투갈) 전 AS로마 감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폰세카 감독은 과거에도 토트넘 사령탑 후보에 올랐던 인물이다.

한편 토트넘은 오는 5일 비테세와 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조별리그 홈 경기를 치른 뒤 7일에는 에버턴과 EPL 11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2AM, 7년만의 앨범 발라드로 돌아왔다

발라드 보컬 그룹 '2AM'(사진)이 7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

2AM은 1일 오후 6시 새 미니앨범 '발라드 21 가을/겨울(Ballad 21 F/W)'을 발표했다. 2014년 10월 발표한 정규 3집 '렛츠 토크(Let's Talk)' 이후 첫 앨범이다.

2AM은 2008년 JYP엔터테인먼트 수장인 프로듀서 겸 박진영이 2PM과 동시 기획한 그룹으로 데뷔해 주목 받았다. 리더 조권, 이창민, 임슬옹, 정진운으로 구성됐다.

2AM은 새벽 2시 같은 조용한 발라드 음악, 2PM은 오후 2시 같은 역동적인 댄스 음악을 선보이는 콘셉트였다. 2AM의 매니지먼트는 방시혁의 장이 이끄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현 하이브), 2PM 매니지먼트는 JYP가 맡았다.

이후 2AM은 '이 노래' '죽어도 못 보내' '전환 받지 않는 너에게' '너도 나처럼' 등 히트곡을 내며 인기 그룹 반열에 올랐다. 완전체 공백기 동안 네 멤버는 솔로가수, 예능, 영화, 뮤지컬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이번 앨범은 더블 타이틀곡을 내세웠는데 역시 방시혁과 박진영이 지원 사격했다.

첫 번째 타이틀곡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는 '죽어도 못 보내', '전환 받지 않는 너에게'의 프로듀서 방시혁이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가까이 있어서 몰랐던 사람에게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따뜻한 멜로디에 담아 낸 곡이다. 옛 시절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이별의 아픔과 향수를 자극한다.

두 번째 타이틀곡 '잘 가라니'는 박진영의 자작곡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는 순간의 복잡한 마음을 표현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가사와 음악의 기승전결이 드러나 마티하게 펼쳐진다. 스키데일리/뉴시스

농협경제지주

가까이 하면 더욱 안전한 우리축산물

농협안심한우
농협안심한돈
농협안심계란
농협안심축산

우리나라 축산물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농협안심축산 사업은 전국 농축협과 함께 합니다.